

# 힙쓰는 죽음의 그림자... “하루하루가 고통”

[편집자주] 평화롭던 시골마을이 초토화됐다. 18년 동안 주민 97명 중 26명이 암에 걸렸다.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얘기다. 2001년 마을 옆에 들어선 금강농산이라는 비료공장에서 원료로 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암 원인이라는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미 많은 주민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 암으로 아들과 남편 먼저 보낸 70대 “매일 곡소리”

### 환경부-전북도-익산시 “주민들 최대한 지원할 것”

#### 장점마을 집단암

전북 익산 장점마을은 금강농산 비료공장 때문에 수십 명이 암에 걸리면서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로 초토화된 상태다. ‘나도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주민도 있다. 금강농산 비료공장과 불과 50

여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김인수씨(58)는 20일 “비료공장에서 태운 연초박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십여년 간 계속 간접흡연 속에 살았다. 그 속에서 어떻게 몸이 버티겠느냐”고 했다. 김씨는 “익산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안에 있던 공장시설과 폐기물도 치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치우기 전에는 약취를 풍기는 물건들로 가득했었다”고 했다.

그는 “공장이 들어오고 나서 약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창문조차 열고 있을 수 없었다”면서 “아내는 약취를 견디지 못해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 가족은 다행히 아무도 암에 걸리지 않았다. 마침 이날은 익산시보건소가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는 날이었다.



지난 20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익산시보건소 직원의 부축을 받고 귀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익산시 간부들이 집단 암 발생으로 사망한 장점마을 주민들을 향해 묵념을 하는 모습.



전북 익산 장고재마을에서 바라본 장점마을.

“연초박 때문이다. 십여년간 비료공장이 담배를 피운 꼴”이라면서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간접흡연 속에서 살았으니 아플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었다.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더 이상할까 안 왔을 것”이라면서 “피해구제까지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끝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옥희씨(74·여)는 5년 전인 2014년 폐암에 걸린 남편을 잃고 자신도 ‘갑상선이 이상하다’는 병명 진단 이후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민관합의회 위원장은 “우리 마을 외에도 인근 마을 2곳에서 비료공장의 영향으로 암이 발병한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집단 암 발병 원인 규명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더미다”고 했다.

장점마을 바로 옆 왕인마을의 최광호 이장은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 주민 50명 중 8명의 암환자가 발생했고 이들중 3명은 이미 사망했다”면서 “우리 마을은 장점마을과 50m도 떨어지지 않았다. 비료공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점마을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장고재 마을 쪽 이야기는 달랐다. 이 마을 주민 김평광씨(80·여)는 “우리 마을에는 아직 암으로 인한 사망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익산시에서 내년에 정밀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 주민 김평광씨(80·여)는 “우리 마을에는 아직 암으로 인한 사망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익산시에서 내년에 정밀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 주민 김평광씨(80·여)는 “우리 마을에는 아직 암으로 인한 사망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익산시에서 내년에 정밀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 주민 김평광씨(80·여)는 “우리 마을에는 아직 암으로 인한 사망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익산시에서 내년에 정밀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장점마을 암 환자 몇명?...환경부-익산시-장점마을 제각각

익산시는 올해 장점마을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주민 97명 가운데 26명이 암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4명은 사망했고, 12명은 부병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암 발병 환자가 몇명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환경부는 실태조사 결과 사망 14명, 생존 8명 등 총 22명이 암에 걸렸다고 밝혔다.

사망자 14명은 폐암 4명, 위암과 피부암 각 3명, 대장암 1명, 담도암 1명, 간암 2명이고 생존자 8명은 위암 3명,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세포암, 난소암 각 1명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점마을 주민들은 환경부 조사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해 축소된 것이라고 했다. 암환자인데도 암센터에 등록이 안 됐거나 추가로 발생한 환자까지 포함하면 11명이 늘어난 33명이 라고 했다.

익산시는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에 주민들 주장을 일부 반영해 추가 발생자 등을 합쳐 26명으로

집계했다. 익산시는 내년에 원광대학교병원과 함께 왕인마을과 장고재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암 발병 전수조사를 해 3개 마을의 정확한 암 환자를 집계할 계획이다.

#### ◇환경부-전북도-익산시 “주민 피해 최대한 지원하겠다”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의 충격을 받은 장점마을에 정부도 지자체도 “돕겠다”고 나섰다.

환경부는 실태조사 발표 후 “향후 익산시와 협의해 주민건강 관찰 및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했다.

전북도는 “비료공장으로 인해 암이 발병한 주민 외에 유사암환자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마을 인근 환경정화 및 인근 토양 모니터링과 하천수 환경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시는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장점마을 내 침적먼지 제거 △농배수 준설 △주거환경 정화작업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우울감 등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상담치료도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